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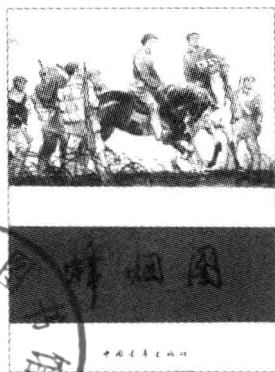
중국당대 장편소설 소장본

红色经典
系列

뽕화도

량빈 저
김응준 역

중국당대 장편소설 소장본



红华道

량빈 저
김응준 역

홍콩출판사
홍콩출판사

2012 · 할빈

图书在版编目(CIP)数据

烽烟图：朝鲜文 / 梁斌著；金应俊译. -- 哈尔滨：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2012.12
ISBN 978-7-5389-1897-7

I. ①烽… II. ①梁… ②金… III. ①长篇小说—中
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I247.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2)第300008号

书 名 / 烽烟图
著 者 / 梁 斌
译 者 / 金应俊
责任编辑 / 朴承姬
责任校对 / 宋英爱
封面设计 / 李光吉
出版发行 /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 0451-57364224
电子信箱 / hcxmz@126.com
网络出版 / 东北网络台 (www.dbw.cn)
支持单位
印 刷 / 牡丹江新闻传媒印务有限公司
开 本 / 640mm×960mm 1/16
印 张 / 36.25
字 数 / 660千字
版 次 / 2012年12月第1版
印 次 / 2012年12月第1次印刷
书 号 / ISBN 978-7-5389-1897-7(民文)
定 价 / 57.00元

출판설명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1966년까지는 중국장편소설의 창작과 출판의 전성기였다. 이 십여년간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었는데 그중 수십편의 작품들은 그 독특한 매력으로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작품들은 사실주의창작원칙을 견지하면서 다양한 표현적수법으로 토지혁명과 항일전쟁, 해방전쟁과 사회주의건설 등 각이한 력사적시기 중국인민들의 간고하고 장구한 투쟁과정과 진취적인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화하여 중국당대 문학사의 최고봉을 이루었다.

이 시기 중국장편소설의 창작성과를 대내외에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본사에서는 “중국당대 장편소설 소장본”시리즈를 번역, 출판하게 되었다.

첫단계의 작업으로 “홍색경전소설” 10부를 완역, 출판하였는데 독자들의 반응이 대단히 좋았다. 《봉화도(烽烟图)》 등 기타 작품들에 대한 추가 출판요청도 제기되어 우리는 “홍색경전소설” 7부를 더 출판하기로 하였다.

“홍색경전소설”이란 모택동동지의 “연안문예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정신을 지침으로 삼고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진행한 혁명투쟁속에서 용솟음쳐나온 일반 로농병사들의 생활을 전형화하여 반영한 소설문학을 말한다. 이러한 소설들은 영웅서사시적인 거대한 화폭으로 당시의 사회생활을 폭넓게 반영함으로써 애국주의교양의 훌륭한 소재로 되었으며 문학과사 혁명사의 완정성을 기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홍색경전소설” 번역 원본은 인민문학출판사에서 출판한 “중국당대 장편소설 소장본”시리즈에서 선정한것이다.

번역, 출판 과정에 고심어린 노력으로 완미함을 추구하였지만 부족점이 많으리라 생각하면서 전문가들과 독자 여러분의 진지한 조언을 요청하는바이다.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12년 10월

고려폭동(高麗暴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한차례 피비린 탄압을 빚어냈다. 장개석은 여전히 “부저항”주의를 견지하고 “외적을 물리치자면 먼저 국내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떠벌이고있었다. 동맹군은 찰수에서 한차례 치렬한 항전을 벌리긴 했지만 “하응흙-우메즈협정”으로 란하동쪽 열여덟개 현을 팔아버렸고 은여경은 기동에서 방공자치 정부를 세웠으며 송철원은 기찰 정무위원회를 주최했다. 결국 정세는 의연히 왜놈들의 중국 침략에 리롭게 되었다. 이런 정세에 직면하여 애국심을 지닌 인민대중들은 차마 눈 뜨고 보고만있을수 없었다.

고려폭동이 실패한 뒤 어언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아침과 저녁이면 늘 서늘한 바람이 부는 기중평원에 1937년의 여름이 또다시 찾아왔다. 금시 밀이삭이 누르스름해지면서 망종이 다가왔다. 주로충은 동쪽 안쪽에 있는 수수밭에서 김을 매고있었다. 그는 두손으로 호미자루를 거머쥐고 머리를 땅에 쫓을듯 허리를 구부리고있어 눈섭에 맺혔던 구슬땀이 수염에까지 흘러내려 대롱대롱 매달려있다가 메마른 땅에 떨어졌다. 태양은 거무스레한 잔등을 췌췌 내리쬘이고 갈색 무명바지는 땀에 흠뻑 젖었지만 그는 찌물कु는 더위를 무릅쓰고 허리를 구부린채 단숨에 밭머리까지 나갔다. 이어 느릿느릿 허리를 편 그는 머리를 쳐들고 이마살을 찌프리며 해를 쳐다보고나서 긴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다.

“아이구! 지루한 날이구나.”

허리를 구부정하고 땅에 주저앉은 그는 해빛을 등지고 담배 한대를 피웠다. 그리고는 담배재를 호미자루에 툭툭 털고나서 호미를 메고 동쪽을 따라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간 주로충은 호미를 놓고 짚을 치여 소에게 준 다음 다듬이돌우에 앉아서 땀을 들이는 한편 담배를 피우면서 생각하였다. 대폭동이후 이 몇년 동안 어떻게 지냈던가? 비록 권살이 넘었지만 그는 아직도 늙은티가 나지 않았고 기골은 꽤나 튼튼해보였다. 그는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생각하면 부지중 마음이 조마조마해나서 또 고개를

숙이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점심때가 다가오자 금화는 땀나뭇을 안고 들어와 불을 지펴 밥을 짓기 시작하였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졌다. 주로충은 수염도 어지간히 길고 머리도 텅수룩해서 땀에 젖은 머리끝이 가려워났다. 하여 시원하게 머리도 깎고 수염도 깎으려고 대귀 어머니를 시켜 주로명네 집에 가서 면도칼을 빌려오게 하였다. 그런데 면도칼은 오래동안 쓰지 않고 두었는지 녹투성이었다. 대귀 어머니는 솥돌을 가져다 틀에 놓았지만 흙으로 된 틀인지라 솥돌이 바로놓이지 않았다. 주로충은 금화더러 더운물을 떠오게 한 다음 얼굴과 머리를 씻는데 그의 굵은 손뼉마디가 세수대야에 부딪칠 때마다 땡그랑땡그랑 소리가 났다.

한창 머리를 깎고있는데 경아 어머니가 팔뚝을 드러내고 널따란 팔 소매를 휘저으며 혈레벌떡 뛰어들어 두눈이 둥글해서 말하였다.

“아주버님, 무슨 영문인지 풍가네 호위원 로산두가 경아를 붙잡아다가 다짜고짜로 큰 회화나무에 달아뺐어요.”

이 말을 들은 주로충은 어리둥절하여 한참 말문이 막혀있다가 피식 쓴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다.

“저런! 사달이 또 생겼구나.”

순간 그의 가슴속에서 5년 동안 묻혀있던 분노가 밀물마냥 치솟아 올랐다. 그는 안달이 나 머리를 마저 깎을 경황도 없이 일어나려고 하였다.

“이게 무슨 꼴이에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해도 깎던 머리야 마저 깎아야지, 남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하고 대귀 어머니가 말하였다.

대귀 어머니는 덤벼치며 뒤편 더 밀고나서 물었다.

“아픈가요?”

“아프다니! 아프다 해도 머리칼을 베는거지 목을 베는게 아니잖소. 풍귀당이란자가 만약 내 목을 베는데 내가 아프다는 소리를 한다면 내 성씨를 바꾸겠소.” 하고 주로충은 말하였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눈을 꼭 감고 묵묵히 중얼거렸다.

“에이참, 우리가 실패하니까 그자들이 우리를 개보다도 못하게 본다니까!”

그는 실로 격분하여 두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녹이 쓸어 무딘 면도칼이 머리살을 뽀뽀 긁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를 악물고 참는 그의 얼

굴에는 주름살이 더 깊이 패인것 같았다. 고려폭동이 실패한후 주로충은 부득불 숨을 죽이고 사는수 밖에 없었지만 결코 머리를 숙인것은 아니었다.

코물, 눈물을 잇달아 흘치는 경아 어머니는 눈물투성이가 되어 말하였다.

“아주버님, 빨리 가보지요. 풍가네가 경아를 죽도록 매질하고있어요. 경아 아버지는 모두 아주버니네 한피줄 형제인데 폭동을 일으켰다가 죽었어요. 내 생각 같아서는 빌어먹더라도 이 복새판을 떠나 멀리 가버리면 좋으련만... 아드애가 또 풍귀당한테 붙잡혔어요. 만약 아드애까지 죽게 된다면 난 어떻게 하나요?”

경아 어머니는 옷소매를 거머쥐고 눈물을 너무 닦아 남색 무명소매가 다 젖어버렸다.

고려폭동이 실패하자 주로성은 적들의 작두날에 희생되었고 경아 어머니는 애들을 데리고 청사장숙에 몸을 숨기고 배고프면 쫓옥수수를 먹고 목이 마르면 우물물을 마시면서 야밤삼경이 되어서야 겨우 집에 돌아가 먹을걸 좀 만들군 하였다. 그녀는 애들을 데리고 관동에 가서 살만한 곳을 찾아볼가 하는 궁리도 해보았지만 날씨가 쌀렁해지는데 애들은 추위를 가릴만한 옷도 변변한것이 없고 또 로자가 전혀 없으니 떠날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리고 더구나 정든 친척과 이웃들을 차마 버리고 떠날수 없었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고싶지 않았던것이다.

어느덧 서풍이 불기 시작하니 곧장 가을을 해야 했다. 이 땀기를 가을하면 저쪽 땀기로 옮기고 저쪽 땀기를 가을하면 그들은 다른 청사장으로 옮겨야 했다. 나중에 가을걷이가 말끔히 끝나게 되자 그녀는 세상에 더는 몸 둘 곳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풍귀당은 민단을 거느리고 가는 곳마다 폭동에 참가한 가족들을 붙잡아서는 손해배상을 하게 하였다. 그녀는 실로 숨어있을 곳이 없어 일시 마음을 모질게 먹고 바지띠를 풀어 마을 북쪽에 있는 대추나무에 걸었다. 바로 이때 주로충이 급히 와서 말하였다.

“홀륭하게 죽는것보다는 비참하게라도 살아가는편이 낫다고 하는데 제수는 이게 무슨 짓이요?”

주로충은 부랴부랴 그녀를 풀어내려서 아무리 살아가기 힘들더라도

애들을 꼭 키워야 하고 그래야만 비로소 주로성한테 미안하지 않다고 위안하였다. 그후 풍귀당이 경아를 인질로 삼아 자기 집에 머슴으로 불러둔 뒤에야 그들은 겨우 집에 돌아가 살수 있었다.

주로충은 어린것들이 고생한것을 생각하자 마음이 쓰려 말하였다.

“성이 나도 참아야지, 울긴 왜 우오? 로성은 사내대장부였소. 죽을 지언정 놈들에게 굽어들지 않았단 말이요. 경아도 장한 애니까 그러면 안되오.”

실로 분노가 북받친 그는 머리를 깎자 바람으로 세수를 대충 하고 무명옷을 갈아입었다. 이어 곰방대와 담배쌈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금화는 시아버지가 나가는것을 보고 부뚜막에서 머리를 내밀고 물었다.

“아버님은 식사도 하지 않고 가십니까? 아이고! 살기 힘든 세월이구 만요.”

금화의 말을 들은 주로충은 주춤 멈춰서서 말하였다.

“난 배고프지 않으니 너희들이나 먹어라!”라고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씨엉씨엉 걸어나갔다.

대귀 어머니가 뒤에서 말하였다.

“어서 가세요! 경아가 한창 더위를 먹고있겠는데. 아이고! 애비 없는 불쌍한 애야, 또 우리 주씨네 가문에서 사달이 생기는구만.”

주로충은 이 말을 듣자 고개를 돌려 옷섶을 툭툭 털며 말하였다.

“당신의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요. 두고보오. 물이 찼 뒤에야 게구멍이 보인다고 생활이 막바지에 이르면 그다음에는 그자들의 머리에 떨어지오. 오늘 가서 풍귀당과 교섭해보고 잘 안되면 난 그 길로 현성에 들어가볼테요...”

오늘 아침 강도가 현성의 한 사람에게 부탁하여 편지 한통 보내왔는데 그가 장차 현에 돌아와 공작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주로충은 그가 돌아와 도대체 무슨 공작을 하는지 아직 모르고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또다시 믿을만한 기둥이 생기게 된것이다.

“당신 기분을 좀 녹꺾히고 성미를 좀 누르세요. 너무 화를 내면 안돼요.” 하고 대귀 어머니가 말하였다. 이어 경아 어머니가 동을 달았다.

“빨리 가자요. 경아가 불더미속에서 시달리고있어요.”

이 말을 들은 주로충은 뒤걸음 걸다가 또 멈춰서서 경아 어머니를 보고 말하였다.

“뭐가 그렇게 급하오? 어느 길로 가든지 산마루에 오르면 되오. 시련을 이겨내야지, 시련속에서 단련하지 않으면 무쇠로 못되오. 임자들은 갈 필요 없으니 집에서 소식이나 기다리오.”

주로충이 대문을 나서자 경아 어머니는 뒤에서 또 중얼거렸다.

“혁명, 혁명, 얼마나 힘겨운 혁명인가. 애아버지를 혁명해치우고 또 아들까지 혁명해치우다니.”

이 말을 들은 주로충은 머리를 책 돌렸다. 둥그레진 두눈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여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마오. 여자들이란 한치 앞밖에 보지 못한다니까!”

그는 허리를 굽혀 형집신을 추어신고 총총히 떠나갔다.

사건은 크지 않았지만 주씨네 가문에서 생겼으니 온 쇄정진이 떠들썩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주경이 수박을 훔친 일”이 화제의 중심거리로 되어버렸다. 오늘 아침 풍가네 수박밭을 지키는 산동령감이 날이 채 밝기전에 일어나 젖은 바지가랭이를 걸어올린채 풍가네 호위원 로산두를 찾아왔다. 로산두는 죄꼬만 세모눈을 부릅뜨고 목을 기웃이 비틀고 물었다.

“사람을 붙잡았는가?”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고 산동령감이 대답하였다.

“사람을 붙잡지 못했다면 그림자도 못 봤는가? 만약 사람그림조차 보지 못했다는걸 풍나리님이 알게 되면 당신 좀 혼나야 할거요. 당신이 올해 한 수박농사는 헛한 셈이 될거고 거간군인 나도 얻어먹지 못하거니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요.” 하고 로산두가 말하였다.

산동령감은 수박농사를 헛했다는 말을 듣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한해 동안 고향을 떠나 타향에 와서 별 이고 나가 달 지고 돌아오며 참말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는 잠간 어리둥절해있다가 더듬거리며 말하였다.

“그… 그런데 수박을 훔치는 놈이 한쪽밭을 저는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둠속인지라 딱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산동령감은 두줄기 눈물을 흘리며 두터운 입술을 헤벌렸는데 코물이 입귀를 따라 흘러내렸다. 그의 포탄처럼 문질리운 외태머리는 목에 감겨있었고 검고 길다란 구레나룻은 풍상에 쪼들린 구리빛 얼굴을 거의 덮어버리다싶이 텅수룩하였다.

로산두는 눈동자를 굴리더니 말하였다.

“음… 절름발이라, 쇠정진엔 참말 많지 않은데! 혹시…”

그는 하던 말을 중동무이하고 중문을 뛰어들어가 풍귀당에게 아뢰었다. 이 소식을 들은 풍귀당은 정신을 도사리고 팔자수염을 쓰다듬으며 한참 있더니 팔을 치켜들고 하하 양천대소하고는 입을 열었다.

“하하! 때가 되었군. 두고 보자. 너 주로충과 주로명이 어디로 피하는지.”

풍귀당은 로산두와 함께 범을 잡는 올가미를 감쪽같이 늘어놓았다. 그날 오전 그는 로산두를 시켜 경아를 밭에서 붙잡아왔다. 한참 김매기 군을 따라 김을 매고있던 경아는 로산두의 부름소리를 듣자 일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바지띠를 바싹 조여매고 좋다못다 말없이 로산두를 따라 집에 돌아와 호미를 큰 회화나무아래에 세워놓고 몸에 묻은 먼지를 털고나서 회계실로 들어갔다. 동의자에 누워 담배를 피우고있던 풍귀당은 경아를 보자 대뜸 눈을 부라리며 고함쳤다.

“제기랄, 주씨네 집안엔 좋은 종자가 없다니까!”

로산두가 걸어들어오면서 손으로 허벅다리를 탁 치고 말하였다.

“이건 위인을 함부로 건드리는게 아닌가?”

일시 갈피를 잡을수 없어서 온몸에 오싹 소름이 끼치는것을 느낀 경아는 입술을 바들바들 떨면서 말하였다.

“무… 무슨 일입니까?”

풍귀당은 손에 꼬나들었던 담배꽂초를 바닥에 문지르며 말하였다.

“너 시치미를 떼는구나, 영낙없이 네가 우리 수박을 훔쳤는데 모른체한단 말이나?”

그는 말하다가 갑작스레 소리를 질렀다.

“여봐라, 이놈을 달아매라.”

경아는 이 소리를 듣자 마치 때아닌 날벼락을 맞은듯 머리가 멍해났다. 두말할것없이 로산두는 제법 재치있게 경아의 팔을 뒤로 결박하

고는 끈으로 매놓았다. 경아는 안간힘을 다해 로산두와 발악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풍가네가 어느해에 큰 회나무에 쇠고리를 매여놓았는지 갈구리를 척 걸어 경아를 쉽게 달아냈다.

풍귀당은 또 수염을 풀풀 불면서 말하였다.

“그놈에게 매를 안겨라.”

로산두는 시퍼런 버들회초리를 휘두르며 따지였다.

“말해라! 네가 수박을 훔쳤지?”

가슴을 내뺀 경아는 두눈을 부릅뜨고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수박을 훔칠 때 주로충도 있었느냐?” 하고 로산두가 또 따지였다.

“없었소.” 하고 경아는 도리머리를 저으며 말하였다.

“주로명은 있었느냐?” 하고 로산두는 펄펄 뛰며 물었다.

경아는 추호도 드팀없이 “없었소.” 하고 대답하였다.

성이 나서 얼굴이 지지벌개진 로산두는 버들회초리로 경아의 잔등을 내리치며 물었다.

“소순과 소돈은 있었느냐?”

경아는 숨을 멈추고 배에 힘을 주면서 발을 탕 구르고 말하였다.

“허튼소리요. 난 풍가네 수박밭 근처에도 가지 않았소.”

로산두는 두다리를 벌리고 허리를 쪽 펴고 서서는 한때 때리고는 한마디씩 묻곤 하였다. 회초리로 내리칠적마다 경아의 잔등에는 즉시 한줄기 피자국이 부어올랐다. 나중에 로산두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바줄을 거머쥐고 경아의 두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달아냈다. 경아는 하느수없이 허리를 바싹 구부리고 배에 힘을 주며 아픔을 참아냈다. 그의 흙빛이 된 얼굴에는 대뜸 울퉁불퉁 피대가 서고 온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으며 두팔은 비틀려 물러나는상싶었고 칼로 살을 저며내는것 같았다. 순간 그의 얼굴에는 쿵알 같은 땀방울들이 돌아났다. 그는 안간힘을 다하여 모지름을 썼지만 까무라치는통에 온몸이 마비되어 짹짹 내리치는 회초리가 어디에 와닿는지도 알수 없었다. 잠간후 그를 동여맨 바줄은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바로 이 무렵에 주로충은 곰방대를 들고 총총히 풍가네 뜨락에 들어섰다. 구경꾼들은 그가 걸어들어오는것을 보자 길을 비켜주었다. 주

로충의 눈에 물에 뜬 오리마냥 큰 회화나무에 매달려있는 경아가 띄었다. 그는 쓴웃음을 짓고 앞으로 걸어나가 말을 하였다.

“난 늙다리 텃석부리지만 우리가 이미 계약을 한 이상 오늘 난 당신과 할 말은 해야겠소. 들어주면 좋구 안 들어주면 내가 빈말을 한걸로 치기요. 이 몇해 동안 경아가 당신네 집에 들어와 우스개소리를 좀 하기 좋아했을뿐이지 누구도 이 애를 나쁘다고 한적이 없었소. 헌데 오늘은 무슨 일때문에 이 애를 이렇게 매질하오?”

로산두는 주로충의 말에 날이 선것을 보고 인차 버들회초리를 버리고 다가가 주로충의 말머리를 막았다.

“주로충이, 이런 일ियो. 간밤에 수박밭에 도적이 들어 수박을 가득 훔쳐갔소. 산동령감의 말에 의하면 수박을 훔친 놈이 한쪽발을 전다그하오. 당신 생각해보오, 우리 집에 절름발이가 몇이 있소? 이는 풍씨 가문의 면목을 깎는 일이 아니요?...”

주로충은 로산두의 말을 꺾어버리고 한마디 하였다.

“그렇소! 쇠정진에서 절름발이는 주경이 하나뿐이지만 수박을 훔친 사람이 꼭 주경이라고 할수 없소.”

그는 머리를 돌려 정신을 잃은 주경을 보고 물었다.

“경아야, 네가 수박을 훔쳤느냐?”

경아는 주로충의 목소리에 소스라쳐 정신을 가다듬고 가슴을 내뻗치며 대답하였다.

“아니, 제가 안했습니다.”

주로충은 발을 탕 구르고 얼굴을 붉히며 굼직한 목소리 말하였다.

“그럼 그렇겠지, 사나이의 골기가 있다면 더 큰 목소리로 말해봐라.”

배에다 힘을 준 경아는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였다.

“수박을 훔친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전 너무나 억울합니다.”

주로충은 하하 크게 웃고는 뒤발자국 걸어나가서 말하였다.

“귀당! 당신 증거 있소?”

주로충의 질문을 들은 풍귀당은 대뜸 수염을 쭈뼛 세우고 눈을 부라리며 말하였다.

“이건 산동령감이 한 말ियो.”

주로충은 산동령감한테로 걸어가서 은근히 속삭이듯 말하였다.

“산동형님, 당신도 가난뱅이요. 우리 천하의 가난뱅이들은 모두 한 집안이요. 당신 량심대로 말해야지 악설을 퍼부어선 안되요. 말해보오, 당신 증거가 있소?”

주로충은 멍멍하게 다우쳐 물었다.

산동령감은 주로충의 질문에 이발을 쪼으며 떠듬떠듬 말하였다.

“어, 어, 어제밤 어두워진 다음 하늘에서 번개가 뒤편 번쩍거리는걸 보고 난 이불을 펴고 잤수다. 야밤삼경이 되여 밖에 무슨 동정이 있길래 내다봤더니 예구! 사람들이 두런두런하며 달아납디다. 그런데 뒤에 떨어진 한놈이 한쪽다리를 저는것 같았수다. 난 시름이 놓이지 않아 등불을 켜들고 나가보았더니 하느님 맙소사. 수박을 죄다 도적 맞히다니. 예구! 내 팔자두 사납지. 고향을 떠나 여기에 와서 밭을 부치며 여태껏 별별 고생을 다했건만 그 좋은 수박을 몽땅 도적 맞히다니. 이제 우리 집 로소는 무엇으로 살아간단 말이유. 난 너무 속상해 밤새껏 영영 소리 내여 울었수다.”

그는 다시금 대성통곡하였다.

“이 타관사람을 불쌍하게 봐주소서.”

주로충은 괴로와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말하였다.

“됐소, 알았소. 마치 한쪽다리를 저는것 같았다구? 어둠속에서 본건 증거로 될수 없소.”

주로충은 이렇게 말하면서 왼손을 허리에 지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산동형님, 당신은 우리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하오.”

주로충은 비록 나이가 있었지만 그의 강직하고 림름한 모습에는 아직도 홍군 대대장의 기백이 남아있었다. 산동령감은 주로충의 말에 가슴이 찢렸는지 입을 꼭 다물고 구태여 더 말하지 않았다. 분위기가 어색해진걸 보고 보장 류이묘가 걸어나와 말하였다.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남을 밀지게 하고 자기 리익을 채우는 일은 본토배기한테서 생기는게 아니지요.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먼저 사람부터 풀어놓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경아를 동여맨 바줄을 풀려고 하였다.

주로충은 걸어나가 두손으로 바줄을 거머쥐고 말하였다.

“아니, 안되오! 이걸… 사람을 붙잡긴 쉽지만 사람을 풀어놓는건 쉬운 일이 아니요. 풍가네 뜨락에 ‘법정’이 없는데 이렇게 사형별로 사람을 달아매놓고 매질하는건 불법이요.”

풍귀당은 주로충이 이렇듯 기세높이 맞서는걸 보고 핵 돌아서서 회계실로 들어가 창살을 사이두고 노발대발하며 소리쳤다.

“주로충, 당신이 대폭동을 일으킨걸 잊지 말라구.”

주로충은 이 말을 듣자 홀연 얼굴을 붉히며 창문가로 뒤발자국 걸어가서 하하 대소하고 말하였다.

“잊을수 없지. 대폭동은 창고를 열어 빈민을 구제하고 군중을 발동하여 항일군에 참가시키구 전선까지 나갔으니 좋은 일이지. 당신들이 폭동을 탄압하게 되자 나는 할수없이 이귀와 경아를 당신네 집에서 일하게 했소. 그러나 오늘 똑똑히 말해둬야 할것은 결코 그 애들의 목숨까지 당신에게 맡긴건 아니요…”

“당신이 잊지 않으면 되오.” 하고 풍귀당이 말하였다.

“난 잊을수 없소. 지금 당신네가 힘이 있고 우린 힘이 없지.” 하고 주로충이 말하였다.

로산두는 손에 회초리를 든채 노기등등하여 말하였다.

“주로충, 내가 권고하는데 좀 고분고분 했으면 좋겠소.”

주로충이 머리를 기웃하고 힐끗 바라보니 로산두는 흉악한 마귀처럼 그의 앞에 서있었는데 마치 당장이라도 사람을 한입에 잡아먹을듯싶었다. 주로충은 입술을 사려물고 잠간 있다가 몸을 돌려 대문을 나간 다음 서쪽으로 굽어들어 시내로 들어가는 큰길에 올라섰다. 류이묘는 그가 무슨 연줄을 찾아가는줄로 알았다. 류이묘가 보건대 주로충은 비록 폭동에서 실패했지만 아직도 사람들사이에서 명망이 있기에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류이묘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분부하여 경아를 풀어놓게 하고 자기는 걸음을 다그쳐 쫓아갔다. 주로충이 앞에서 달리고 그가 뒤에서 쫓으며 내쳐 큰 나루터에 이르러서야 주로충의 옷소매를 잡았다. 그는 한참 구변을 늘어놓아서야 겨우 주로충을 돌려세웠다. 류이묘는 그를 사합원으로 끌고가 출납실에 앉혔다. 그리고 술단지에서 너냥 가량 되는 배갈을 따르고 락화생을 한줌 밥상우에 올려놓고 말하였다.

“큰형! 우리 형제간이기에 내가 오늘 할 말을 좀 해야겠소. 형은 서울도 가보고 전투도 겪어본 사람으로서 왜 아직도 이렇게 모르오? 우리 동서 두 채정에서 송사노름을 몇해나 했소? 헛되게 써버린 은전만 해도 한 무더기가 되겠지만 송사해서 얻은것이 무엇이요? 지금은 이 류이묘가 우리 촌의 일을 관할하므로 송사를 못하게 하겠소. 밀지나 리익을 보나 죄다 채정진의 일이니까!”

주로충은 담배쌈지를 상우에 탁 뿌리치며 말하였다.

“그렇지! 그들 서채정은 돈이 있고 세도가 있지만 우리 동채정은 생명이 있고 인간이 있지. 가난뱅이에게도 기골이 있소. 이 주어진 목숨은 대대로 업수임을 받을대로 다 받았소. 보오, 민국 15년 군대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21년 대폭동을 위해 우리 동채정은 가산을 탕진하였고 그후로 우리 가난뱅이들은 얼마나 막심한 고생을 했소.”

주로충은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고려유격전쟁이 실패한 이후 혁명하던 사람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였다. 주로성 등 쓰러진 전우들의 영상이 금시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류이묘는 술 한모금을 입에 물고 입술을 감빨면서 들이키고는 흡사 다정한채 두손으로 술사발을 받쳐들어 주로충에게 넘겨주면서 말하였다.

“큰형! 지난날 우리 같이 일한적이 많지 않소. 오늘 내가 하는 말을 들을수도 있고 듣지 않을수도 있소. 보오, 이게 무슨 세상인가? 풍나리님은 대학당을 다녔고 군대법관도 해보았소. 어르신님이 계실 때 그이는 소송장을 쓰는데 소문난 사람이었소. 그리고 몇대를 내려오면서 마을에서 주인노릇을 하고 관청도 드나들었소. ‘흑선풍’도 말을 타고 채정진을 지나다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말에서 내려 배알한다니까...”

이 말을 들은 주로충은 술 한모금 마시고나서 연신 손을 내저으며 말하였다.

“자네 그를 두둔하지 마오. 난 죄다 겪어보고 보아왔소.”

류이묘는 또다시 주로충의 손을 상우에 짹 눌러놓고 말을 이었다.

“풍씨네 집에는 려단장을 하는 사람이 있소. 그렇소, 형네 동채정은 엄강도 하나를 등에 업고있지. 누구나 다 알다싶이 공산당내부에서는 그를 재간둥이요, 담력과 식견이 있고 능력이 있어 말 한마디에 천군만

마를 움직인다고 하지. 근데 형은 아직도 모르오. 그는 도형을 받고 몇 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했소. 현의 비밀명단에는 그가 적혀있다고. 그리고 대폭동이후 형도 어디 제맘대로 해서 되오?”

그는 또 주먹을 주로총앞으로 내밀며 말을 이었다.

“이런 판국에 주로총 당신이 무얼 더 할수 있단 말ियो?”

류이묘의 말에는 절반 권고에 절반 공갈이 섞여있었다. 맨 마지막 말을 뱉을 때 그는 자기 낮을 주로총의 얼굴에 갖다대고 양가죽을 쓴 승냥이몰골로 아양을 떨었다.

주로총은 머리를 숙인채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한참 함구무언이 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고있었다.

(내 나이를 몇살 더 먹었지만 작두를 들고 풍귀당의 머리를 벨 힘은 아직도 남아있어. 헌데 나는 그렇게 할수 없다. 참고 살아가야 한다. 참고 혁명의 고조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혁명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는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류이묘의 말귀를 더듬어보고 또 그의 마지막 한마디 뜻을 헤아려보면서 술 한잔 마시고 입술을 짹짹 다쳐봤지만 신통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날 오후 류이묘는 사람들을 시켜 주경을 동쇄정으로 들어왔다. 대귀 어머니는 그를 가마목에 눕혀놓고 눈물을 흘렸다.

주로성이 희생된후부터 주로총은 언제나 경아를 자기의 친아들처럼 보살펴주었다.

경아 어머니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경아의 잔등을 들춰봤다. 근골은 다치지 않았지만 살가죽은 실로 엉망이 되어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몸에 옆드려 쿵쾅쿵쾅 울었다.

“경아야, 경아, 불쌍한 애야!”

“어머니! 울지 마세요. 이건 불행이 아니예요. 불행은 아직 뒤에 있어요. 전 그놈과 한평생 해볼테예요.”

경아는 이렇게 말하면서 얼굴을 베개에 묻고 엉엉 대성통곡하였다.

대귀 어머니는 서쇄정에서 말린 밀국수 한웅큼 사가지고와서 닭알 두개를 깨여넣고 끓여 경아앞에 갖다놓았다.

“경아야, 경아야, 온 하루 굶었는데 좀 먹어라.”